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72호 [루게 제 24585호] 주제 103 (2014)년 6월 21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 창조 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어랑천 5호발전소건설 힘있게 추진

경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오야 합니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이곳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발전소건설장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지금 이곳 건설자들은 집단적혁신의 열풍을 일으키며 어랑천 5호발전소물길공사를 짧은 기간에 와 다탈 해체건설 이어 잠판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총길이 수백m이고 체적만도 수천m³에 달하는 잠판을 형성해야 하는 이 공사는 1만여m³의 토량을 처리하고 지반을 콘크리트를 타일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이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합력투

쟁을 심장에 새겨안고 방대한 공사를 앞당겨 끝낼 열의에 넘쳐 힘찬 돌격전을 벌이고있다. 그들은 콘크리트타일장으로 때없이 물이 흘러드는 어려운 속에서도 굴착과 타일전투를 중단 없이 내밀며 매일 멀쩡한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서로의 창조적의도와 힘을 합쳐 이동식 화물차를 비롯한 앞선 건설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60일동안에 6 000m³의 토량을 처리하고 100여m²의 잠판공사를 끝내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공사초기에 잠판이 들어앉게 될 토신을 합력적으로 정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길 수 있게 한 기술자들과 전투원들은 전투장마다에서 여러가지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군체일일공들을 비롯한 어랑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잠판공사를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군의 녀맹원들은 녀맹돌격대를 뚫고 공사장에 달려가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어랑천 발전소 건설장에서 - 본사기자 특약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경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해부,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야 합니다.》**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석탄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지도도에 면합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은 탄광들에서 굴진을 확고히 하세워 미 매장량이 많고 재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일꾼들은 각 탄광들을 맡고 갱막장들에 들어가 더 높은 석탄생산으로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탄부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일꾼들은 탄부들속에 들어간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상을 따라배우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그들모두가 오늘날의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떨쳐주라고 한다.
참모부의 일꾼들은 들쭉는 막장에 들어가 화전석정치사업을 벌이고 생산지휘도 하면서 전격의 돌과공을 열어나가고있다.

은 나라에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새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서 건설성과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지휘부에 종합된 자로서 의하면 공사에 참가한 여러 시공단위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중앙동물원의 수습기 등에 달하는 동물사의 팔조 및 내외의 붓미장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번에 새로 건설되자 개건확장사업의 특색이고 다양한 동물사들의 팔조공사가 전부 계속됨으로써 대상산기술의 100여정보에 달하는 중앙동물원에는 새롭고 이채로운 모습이 펼쳐졌다.
경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선구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동물사들의 기본골조공사를 끝냈다

업적이 깃들여있는 중앙동물원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전면시공을 직접 맡고있는 동물원 인민들의 문화적 생활기준에 걸맞게 꾸러나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한층 밝혀주시었다.
공사에 참가한 여러 단위 근로자와 건설자들은 우리 당의 승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안되는 기간에 현장의 모습을 몰라보게 번모시되었다.
원수님과 파총류, 맹진새를 비롯한 희귀하고 다양한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될 수습기 등에 달하는 동물사의 팔조공사를 전면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복잡한 시공을 요구하는 어려운 공정수행과정에 임하였다.
건설지휘부의 당, 행정책임일꾼들은 작업량이 방대한 까만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열의와 애국정신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이곳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발전소건설장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이곳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발전소건설장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경쟁열풍속에 1만 9 400여동의 남새온실 건설 전국 각지에서

은 나라에 남새온실 건설열풍이 세차게 일어남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경제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을 현지 지도하신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20여정보의 면적에 1만 9 400여동의 남새온실이 새로 건설되었다.
경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에 적극 발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담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6월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을 돌아보시면서 남새온실을 곳곳에 건설하여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사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중앙에서도, 시, 군들에 건설을 표준화한 온실 설계를 내리보내주며, 시, 군들사이의 경쟁을 조직하고 총화대책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해당 부문의 일꾼들은 표준화된 남새온실계획도, 시, 군들에 보내주어 온실을 지방의 기후조건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하였다.
농민협동농장위원회와 도, 시, 군농민협동농장에서는 남새온실을 잘 건설하고 편리한 영을 짜고들기 위한 도, 시, 군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평양시, 함경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가 경쟁의 앞장



논물관리에 힘을 쏟으면서 비배관을 잘해나가고 있다. -온천군 송학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홍준 특약

전당, 전국, 전민이 가물과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군민이 힘을 합쳐 농작물을 적극 보호

하루에 190여정보의 물주기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과 평안북도안의 협동 농업에 달려나간 인민군인들과 일군들,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에서 가물과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달려나온 인민군군인들과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군민이 힘을 합쳐 가물피해로부터 농작물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 시, 군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모든 력량을 가물과의 투쟁에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두적으로 짜고들고있다.
 모든 력량이 총동원된 가운데 협동농장들이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으로 똘똘똘이 서 있다. 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불같은 의지와 협동농장들에 달려나와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인민군인들의 모범을 따라

농업근로자들이 물원천을 모조리 찾아 농사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특히 역성군에서는 90여개의 저수지를 수리복구하고 물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운데 기초하여 한포기의 곡식도 가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력량을 가물과의 투쟁으로 적극 불리일으키고있다.
 한편 이 군에서는 양수기와 강우기, 전동기, 변압기들의 정상 가동상태를 다시금 료해하고 대책을 제때에 떠내어내고있다.
 은천, 강령, 응진, 재령, 태안 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평안북도에서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전두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를 비롯하여 도의 모든 시, 군에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모든 시, 군에서 력량을 총동원하여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달려나온 인민군인들은 협동농장에서

이른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물주기전투를 벌리면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시의 협동농장들은 물론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과 그리고 가두인민반원들이 총동원되어 지난 하루동안에 190여정보의 논밭물주기를 하며 이신착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잘하여야 하겠습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시일군들은 모든 력량을 수반을 농촌에 집중시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현지를 밟으며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는것과 함께 양수설비들과 물운반수단을 최대한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구성시, 응진, 철산, 봉천군을 비롯한 도의 다른 시, 군에서도 군민이 힘을 합쳐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운

정주에서 가물피해막이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시안의 협동농장들은 물론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과 그리고 가두인민반원들이 총동원되어 지난 하루동안에 190여정보의 논밭물주기를 하며 이신착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잘하여야 하겠습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시일군들은 모든 력량을 수반을 농촌에 집중시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현지를 밟으며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는것과 함께 양수설비들과 물운반수단을 최대한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구성시, 응진, 철산, 봉천군을 비롯한 도의 다른 시, 군에서도 군민이 힘을 합쳐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운

이 들 동안 에 와 락 락

물원천을 모조리 탐구동원하여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물피해를 극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관계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며칠전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포전들을 돌아본던 문덕군 상북협동농장 일군들은 생각이 깊었다. 양수설비들에 대한 수리점검을 철저히 하여 많은 면적의 논에 물을 대고 있었지만 일부 포전들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 포전들은 판수체를 세우기가 힘들으므로 하여 가물피해를 입을수 있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포전

드넓은 강냉이밭이 폭젓도록

황주군에서
 드넓은 황주군들이 가물막이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다.
 황주군의 일군들이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두적사업들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든 농장에서 우물과 펌프,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직과 역할을 높이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찾을수록 나오는 물

천내군 로운협동농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천내군 로운협동농장에 가면 이런 말을 들을수 있다.
 —찾을수록 나오는것이 물이다.
 그럴만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겠습시다.》
 이 농장의 논은 양수동력으로 물을 대게 되어있다. 하지만 물올에는 레네에 보기 드문 가물로 하여 일부 포전들에 물을 제때에 대주기 어려운 정황

하루를 통해 얻은 큰 실효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벌어지는 순천시안의 단위들을 돌아보면 기계가 좋다는것을 들을수 있다. 결의목표실현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시장위원회 부장이상일군들을 비롯한 시급기관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4월 시장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계기로 그들이 새롭게 분발하게 된 사실을 놓고보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사업에 대하여 머리를 쓰고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무슨 일에서나 성과의 요인은 그 준비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지난 1.4분기에 일군들이 담당 단위를 맡아준 정형은 총화하는 회의를 앞둔 때의 일이었다.
 다음날에 되게 회의를 보다 실효있게 할수 없었는가를 모색하던 시장책임비서 오용진, 비서 김경식 등들은 풀을 더 넣어야 할 구석이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전에 비해 일군들의 열의가 높아진것은 사실이였지만 아직도 단위사업지도에서 실적이 떨어지는 일군들이 있는것은 무심코 스칠 일이 아니었다.
 (이번 회의를 하는 목적도 일군들이 대중운동을 추동하는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보고따
 필리핀 공화국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각하
 나는 얼마전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필리핀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호상리익에 맞게 계속 추계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3(2014)년 6월 17일 평 양

하루를 통해 얻은 큰 실효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벌어지는 순천시안의 단위들을 돌아보면 기계가 좋다는것을 들을수 있다. 결의목표실현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시장위원회 부장이상일군들을 비롯한 시급기관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4월 시장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계기로 그들이 새롭게 분발하게 된 사실을 놓고보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사업에 대하여 머리를 쓰고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무슨 일에서나 성과의 요인은 그 준비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지난 1.4분기에 일군들이 담당 단위를 맡아준 정형은 총화하는 회의를 앞둔 때의 일이었다.
 다음날에 되게 회의를 보다 실효있게 할수 없었는가를 모색하던 시장책임비서 오용진, 비서 김경식 등들은 풀을 더 넣어야 할 구석이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전에 비해 일군들의 열의가 높아진것은 사실이였지만 아직도 단위사업지도에서 실적이 떨어지는 일군들이 있는것은 무심코 스칠 일이 아니었다.
 (이번 회의를 하는 목적도 일군들이 대중운동을 추동하는에서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으며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이 11일부터 18일까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진행하였다.
 답사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과 보천보혁명전적지, 삼지연못가에 동상과 배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품은 백두산기념비의 조각공예품에 대한 감명을 표현하며, 백두산지구의 역사를 되새기고 삼지연화생소년공전, 배계봉국수집을 비롯하여 삼지연유적구에 대한 참관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답사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라 천지의 장쾌한 전경과 밀밀을 바라보며 백두산전출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되새기었다.
 백두산혁명을 방불하고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은 백두산혁명고향집에서 맹세모임을 가지었다.
 모임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올세신년작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과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선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상적인 원비판을 일으키며 새로운 조진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두다 선봉대, 돌격대가 될것을 굳게 맹세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보고따
 에스빠나 왕국 국왕 펠리페 6 세 페 하
 나는 페하가 에스빠나왕국 국왕으로 즉위하데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에스빠나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3(2014)년 6월 20일 평 양

